

전남도, 여수산단 산업재해 대응 강화 나섰다

유관기관·기업과 실전 대응역량 강화 훈련·예방 점검 회의 294개사 입주해 2만4천여 명 근무하는 세계적 석유화학단지

전남도는 유관기관, 기업과 함께 여수국가 산업단지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유관기관, 기업과 합동으로 이날 여수산단 내 LG화학 공장에서 사고 발생 대응 훈련 및 예방 점검 회의를 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실전 대응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 기업의 의견을 들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여수시 관계자, 최무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등 6개 유관기관을 비롯해 전문가, 산단 기업 10개사 등이 참석했다.

대응 훈련은 전남소방본부와 여수소방서 주관으로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합동방재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장비 23대와 인력 127명이 동원됐다. LG화학 가스저장탱크 누출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했다.

중점 사항은 ▲소방본부·관할소방서 연계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검사·점검 내실화를 통한 대형시설 집중 안전관리 추진 ▲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소방시설 확인·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지도 등이다.

점검 회의에선 전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기업의 산업재해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 발표와 함께 입주기업의 사고방지 활동 공유 등이 이어져 민·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박교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수산업단지의 특성과 산업재해에 관한 주요 안전 법령 등을 소개하고, 여수산단 산업재해 실태를 바탕으로 재해 방지대책 수립 필요성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권섭 전남대학교 교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



방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294개사가 입주해 2만 4천여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석유화학단지 지역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2번의 산업재해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후 설비와

위험의 외주화 등 안전 문제가 산재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기업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노후 국가산단이 안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이용섭 강경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율 전국 최고...누가 유리?

초박빙의 승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첫 날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열기가 뜨겁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23일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안심번호를 통한 ARS(자동응답시스템)선거인단 투표50%로 진행되는데, 첫 날 대세를 가늠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결과 권리당원 9만2966명 중 3만891명(33.23%)이 투표했다. 이는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다.

경선 결과 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에 들어간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첫날 온라인 투표율은 21.64%에 불과했다.

대전 시장 후보 경선은 23.87%, 충남도지사 16.90%, 세종시장 29.66%, 경기도지사 23.58%를 기록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 최고인 것은 이용섭 강경진 예비후보간 4년만의 리턴매치인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지난 3·9대선에 버금가는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조직 총동원령을 내리고 투표율 제고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경선의 최종 투표율은 지난 2018년 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경선 투표율은 42%대였다.

투표율이 높은 것을 놓고 양측이 모두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누가 더 유리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경선 결과는 마지막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부동층의 표심 향배가 중요하다”면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아 두 후보 중 누가 유리할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지검 검사들 “검수완박 속의 거처 신중한 입법 처리” 호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조종태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광주지역 검사들이 속의를 거처 달라고 호소했다.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장이 '검수완박'법안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1일 오전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지검 검사들은 22일 호소문을 내고 “행사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조래할 검찰 제도의 변화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타협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성급히 박탈·제한하는 경우 국민 권의 보호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한마음으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법 처리를 호소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할 뜻을 밝힌 ‘박병석(국회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

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 광주·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김재한기자

광주시, AI반도체 활용 모델 AI가전서 찾는다

AI가전산업 육성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가속화하는 비대면 경제에 맞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하고 있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AI가전산업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재)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가전 개발을 위한 제품 기획부터 AI가전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가전제품 보안, 인증과 표준화 등 AI가전제품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68억5000만원(국비 96억5000만원, 지방비 43억원, 민자 29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AI가전이란 스스로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 가전으로, 최근에는 세탁기, 건조기, 오

븐, 냉장고 등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조명, 공기조 등의 제품과 침대, 책상 등 가구에도 확대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기술 변화에 맞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AI가전은 사용자의 생활습관, 공간의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작동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AI반도체를 활용하는데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AI반도체는 작년부터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술개발 중인 스마트 가전용 AI반도체 등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해 “광주는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으로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광주가 준비해온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줄 의지를 보였다.

시는 이를 통해 AI반도체 활용,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고도화,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AI가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2 느단 1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김종식 (550602-1665611)
최 후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8338(녹진리)

위 망 김종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4월 25일

공 고 인 : 정춘옥, 김남준, 김주영, 김주현, 김주나,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8338(녹진리)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4월 13일
공 고 기 간 : 2022. 4. 25 ~ 2022. 6. 25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느단 166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 망 자 : 망 정호식 (380227-1068313)
최 후 주 소 :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촌중앙길 43-4

위 망 정호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4월 25일

공 고 인 : 김정숙, 정중훈, 정한길,
주 소 :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촌중앙길 43-4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4월 14일
공 고 기 간 : 2022. 4. 25 ~ 2022. 6. 25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5월	240,833원	125,531원	78,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